

## ■ 협회 본부 신사옥 입주



↑ 신사옥 입주 축하 건배를 하는 참석자들



↑ 신사옥 현관에 자리를 함께한 내빈

당 협회 본부가 사옥을 마련하여 지난 6월 15일~18일 신사옥으로 이전하였으며, 신사옥은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거목이신 협회 조규상명예회장의 호를 따서 혜산빌딩이라 이름지어졌다. 그리고 지난 6월 29일에 그간 협회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주신 관계자, 내빈을 초청하고 신사옥마련 입주기념 및 자축행사를 신사옥 대강당에서 가졌다. 이날 기념식에는 특별히 노동부 김상남차관께서 축사를 보내와 서울지방노동청 손일조청장이 대독하였으며, 일본경도공장보건회 乾修然소장,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순문이사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인사 및 협회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.

이 기념식에서 조규상명예회장은 협회창립 37년만에 본부사옥이 마련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는 말과 함께 협회의 초대회장이신 최영태박사 시절의 어려웠던 때를 회고하기도 하였다. 당 협회 임직원은 본부 사옥 입주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재정비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민간산업보건전문기

관으로서 다양한 산업보건서비스로 근로자들에 보답코자 끊임없는 노력할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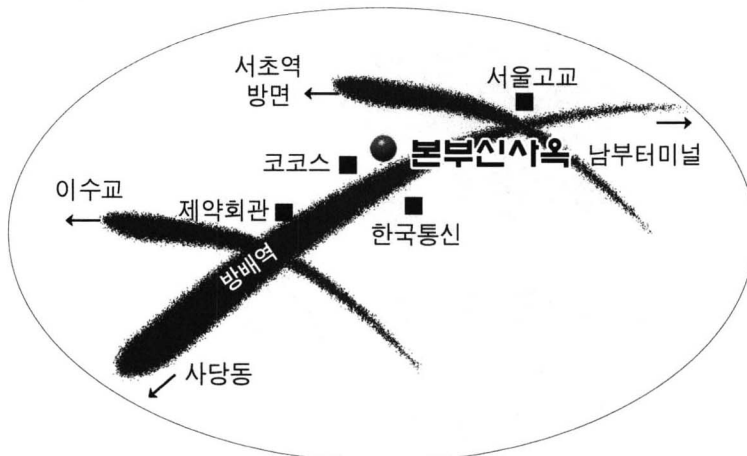
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90-32 해산빌딩 (137-073)

전화 : 기획홍보부 · 총무부 · 경리부 · 전산실 (02)586-2412~4  
 본부장 · 사업국장 · 산업위생부 · 보건대행부 (02)586-2663~5  
 전문위원 · 판독실 · 건강진단부 (02)586-2441  
 FAX : 기획홍보부 · 총무부 · 경리부 (02)585-1584  
 전산실 · 사업국 · 각 협의회 (02)522-0933

### 협의회 전화번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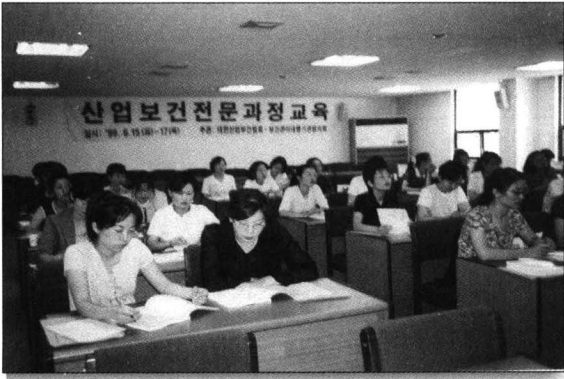
-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본부 (02)586-8584
-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서울 (02)582-2215
- 작업환경측정기술협의회 (02)586-8582
- 특수건강진단기술협의회 (02)586-8583
- 보건관리대행기관협의회 (02)586-2667

### 약도



■ 『산업보건 전문과정』전문화교육 실시

협회에서는 보건관리대행기관종사자 및 사업장의 전담 보건관리자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5일~17일(산업간호분야), 6월 22일~24일(산업위생분야) 2회에 걸쳐 『산업보건 전문과정』전문화교육을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KID 연수원에서 실시하였다.



↑ 산업간호분야 전문화교육



↑ 산업위생분야 전문화교육

■ 협회, 석상일 대리 노동부장관 표창 수상

당 협회 경북산업보건센터 산업위생부 석상일 대리가 제32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정부에서 포상하는 산재예방유공자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.

■ 제32회 산업안전강조주간행사 개최

제32회 산업안전강조주간행사가 6월 30일~7월 3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(COEX)에서 개최되었다. 6월 30일 국제안전기기·작업환경개선소방산업전시회를 시작으로 둘째날인 7월 1일은 제32회 산업안전보건대회가 열렸다. 산업안전보건대회에는 노동부 김상남차관,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순문이사장, 당 협회 윤임중회장을 비롯하여 한국노총, 한국경총 등 각계 단체장들과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.

산재예방을 위한 집중적 홍보활동을 위하여 1968년에 시작된 이 대회는 올해로 32회를 맞이하였



으며, 산재예방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, 각 단체장들의 축사, 사업장 안전보건 우수사례 발표, 산재 예방 노·사 결의문이 채택되는 순으로 이루어졌다.

특히 노동부 김상남차관은 치사를 통해 그 동안 '한강의 기적'을 통해 '아시아 네 마리의 용'으로 불릴 만큼의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으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산업재해와 그로 인해 상처 받은 근로자들의 뼈아픈 현실이 존재했음을 시인하면서, 더 이상은 근로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이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피력하면서, 또한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사명감을 갖고 선진 재해예방기술의 도입 및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, 정부도 21세기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현재 '신산업안전선진화계획'을 수립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노사 및 안전보건관계자와 함께 재해없는 희망의 일터를 창출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.